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의안 번호	3519
----------	------

문성호 의원 (국민의힘, 서대문2)

-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상욱·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수도권 역차별'로 작용하던 기존 지침의 한계점이 제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제안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 수도권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이라는 타이틀에 의해 '경제성' 지표가 절대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예타 평가에서 번번이 탈락하였습니다.
- '25.09.30 시행된 예타 지침 개정안으로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해당 개정 지침의 적용 범위가 민간 자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으로 제한되면서 여전히 '수도권 역차별', '서울 지역 불균형발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나아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추가 검토에 관해서는 중앙관서장의 판단만을 우선한다는 제한 역시 존재해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현장이 아닌 탁상공론화될 수 있는 중앙의 판단에서 결정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노력과 필요성에 공감하나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해당 한계점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어느 한쪽의 발목을 잡아 평 균을 이루는 기계적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요청드리 는 바입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